

사설

새해 거듭난 기독교인들
만날 수 있었으면

200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들은 송구영신을 소망하면서 신성한 새해를 맞았다. 희망찬 새해인즉 우리의 새해인지는 분명하지 어렵지만 좀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에 들며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소원과 기도를 드렸었다. 새해의 출발점에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비전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구원인 줄이 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의 입장과 우리들, 직장, 시민사회에 복음의 편만함을 소망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먼저 각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대비한다면 새해는 아름다운 일들과 함께 그들에게 올 것이다.

또한 기독교 신앙으로 새해를 본다면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의 새해는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의 신앙성장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인(新人)은 신본주의를 통해 기도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으로 그려보았다. 새해에는 뒤처지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드들을 주시는 손길을 주소서, 새

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어 나 더럽히는 것 불뛴을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교회 지도자들은 신성한 새해에는 진실된 회개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는 구원을 쫓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난해 나의 자회상은 어떠했는가? 교회의 연합사업에서, 이웃에 대하여, 사소한 이해관계에서, 춘천시민 구원을 위해서……. 새해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밝고 아름답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지난해는 부정부패, 욕심, 세인들이 실망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어 하나님께 욕을 들었다. 금년에는 참으로 변화하는 기독교인들의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은사로 나를 무뎠게 감싸고 계시다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그들의 언행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금년에는 가정, 직장, 교회,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신자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해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교회 부흥강사 김춘희 목사



일본교회(가사리 오마시목사)의 초청으로 1월26일부터 29일까지 부흥 집회를 인도한다.

본 집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갖가지 미신우상숭배에 젖어 영적으로 죽어가

는 일본인들을 위해 사랑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구원을 인도하라는 목적이 있다.

김목사는 현재 일본인들은 얼마전 동경과 교토 대지진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당황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989년 12월, 사망선고 받은 3개월만에 살아났던 간동과 동위에 난 상처를 증거로 보이며 일본명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강한 믿음을 보였다.

흥천동지방 감리사 정용진 목사



흥천동지방에서는 2000년 12월 27일 서석면 서광교회에서 열린 동지방 실행위원회에서 이케오감리사 후임에 정용진감리교회에 서무하는 정용진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하였다.

정용진감리사는 모진신학대학을 졸업, 지난해 7월 미국 TRINITY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동지방감리사로 목회자간의 화합과 단합, 초교파교회교회, 흥천복음화와 성시화, 평신도의 활성화에 위해 남은 목회생활의 마지막 봉사자로서 최선에 노력으로 일할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성시만평

김춘배



하나 되는 마음으로 떠오르는 새해의 희망

춘천석사교회 장로수련회 개최
- 21세기 선교목표 세우고 전도다짐 -

춘천석사교회(담임목사 임택)는 12월28, 29일 두산리조트에서 목회자 3명과 장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개최하고 2001년 목회계획을 수립, 21세기 교회성장 목표 수립, 성장발전을 위한 강도들의 의견제출, 이를 종합 수련하는 등 일관 열매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2001년도 교회 표어를 "성령과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행19:20)로 정하고 ①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 ②성령과 말씀으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 ③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목회방향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로 1만명 교회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2천5백명 교회로 성장시키기로 하였고 국내외 미자

원교회 각 10개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개척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사교회 성도는 주일성수, 기도, 말씀으로 성령충만, 구령에 따른 전도, 감사와 십일조 이행, 정성스러운 섬김, 사랑과 봉사생활 실천을 석사교회 성도의 생활목표로 정하고 실천하기로 하고 결사적, 노인, 청소년부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도 과제가기로 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교회 성장발전을 위한 강도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 검토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친목도모, 목회자와 강도들간의 이해와 협력증진 등을 통해 알찬 수련회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교계단신

★춘천중앙성경교회(오정종목사)는 1월1일 대천변교회에서 열린 성령강림성회와 1월2일 성령강림성회본부 시무예배에서 설교했다. 또, 1월5일 안양성경교회에서 열린 예성과 기성 연합기도회에서 설교했다.

★춘천석사교회(임택목사)는 2000년12월25일 본교회 지하경기장에서 청년회 대청장년의 진신 탁구시합을 실시하였으며 복식 10게임이 출전해서 우승은 이종현선사, 이종실집사(한계팀)이, 준우승은김동원집사, 김명민선생님이 차지했다. 고등부 주회 "반석의 방" 행사가 1월18일 오후6시30분 본교회에서 있었다.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청년부는 1월12일부터 20일까지 중국동북삼성지역에서 단기선교를 했으며 21일 오후7시 100주년 기념성전 대대배설에서 새성전 입당 축하예배를 드린다.

★춘천대일성경교회(박성철목사)는 1월14일 오후4시 제9기 엘더과송식에서 총 20명의 엘더를 파송했으며 15일 오후2시 본교회 교육관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춘천동부성경교회(임신영목사)는 1월14일 오후7시 이동준목사(서울은광교회)의 설교로 제12회신년을 드렸다.

★춘천영광성경교회(전진구목사)는 1월 15일부터 18일 오후7시까지 본교회당에서 한덕수 목사(미국할렘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주제로 영성과 기쁨의 말씀찬미를 열었다.

★춘천영광성경교회(전진구목사)는 1월7일부터 10일까지 송무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28일 주일 저녁 7시 제111주년 주일로 헌신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선교회소식

☆인촌유리클럽(원영무 회장)은 12월25일 오후5시 성신대학교원대학교에서 총회 및 창립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춘천기독교인 신년교례회 춘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구환목사)는 1월4일 오전11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독교인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장환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허종구장로, 윤교신목사의 성경봉독, 김주환목사의 설교와 김장수

감리교 동부연회 및 춘천지방 4개연회 일정잡혀

감리교 동부연회(감독 박상현) 실행위원회는 오는 3월27일부터 29일까지 주문전교회에서 제60회 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춘천지방 4개지방회는 각 지방회별로 오는 1월27일 연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춘천시지방은 1월27일 춘천교회,

춘천남지방은 2월8일 성암교회, 춘천북지방은 2월15일 평회교회, 춘천동지방은 2월10일 신성교회에서 개최하며 교역자 및 임원보조, 지방사무 및 견산보고, 입원신술, 신전강도 시험과 직책 수여,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1월1일부터 3일까지 춘천제일감리교회(지관석 감리사)에서 열린 춘천동지방연합 부흥시경회 장면

춘천성신본부장 취임예배 드려

지난해 12월21일 춘천성신본부 총회에서 제3대 본부장으로 선출된 임택창 본부장(석사감리교회 담임)의 취임예배가 1월

11일 오후7시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성시화기도모임과 함께 있었다.



감독의 축도 순이었으며 배제집사장, 허천장, 이상룡전장관, 한승수위원, 류종수위원 등 춘천의 기독교기관이 참석했다.

☆ 지방동부성경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시지방 주관, 남, 북, 서지방연합 주회 동부성경교회 1월15~17일까지 평화감리교회에서 열렸으며 17일 오후7시 민명전박사(대한성서공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연합예배를 드렸다.

☆한국제지주연한KDT(대표 윤태호목사)는 제11기 춘천회를 모시고 2월26일 개강하여 사역 회담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해 김, 권, 조, 농, 손, 사, 박, 김, 장, 등 동부지역, 사, 정, 역, 사, 신학도의 훈련을 받고 11월24일 졸업하게 된다.

☆비하리교회협의회는 1월18 ~ 19일 오후7시 제일성경교회에서 최은준 선교사(성가복예수전도단)를 강사로 초청, 성경공부 방법에 대한 강의시간을 가졌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마9:14 ~ 17)

얼마전 교회 사무실 마루가 부서져 새를 놓아야 했다.

처음엔 합판만 갈아 사용하려 했으나, 장판을 뜯어내고 합판을 건 내 보니 맨 아래에 있는 4x4 방판대 각목까지 다 썩어버린 것이 아닌가? 새 합판을 칸다해도 밑에 있는 지지대가 형편없이 썩어 있다면 새 마루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합판과 지지대를 다 뜯어내고 밑에 열에서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이 “야! 하! 소리지르면서 발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서 보니 큰 대목에 발바닥이 깊게 찔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의학 상식이 없는 터라 우선 급한대로 자루 두는 약국에 문의했다. 파상풍이 정확히 뭔지는 있으나 소독하고 항생제 약을 먹은 후 결과를 보자고 했다.

약사는 친절히 응급조치 해 주었다. 겹에 소독약을 몇 번씩 바르고 피를 짜내려고 애썼지만 피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파상풍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해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와 간호사 가위로 상처 부위를 세척해 보더니 갑자기 상처난 발바닥

을 깊숙히 찔러버린 것이 아닌가? 또 한 번의 “앗” 소리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많, 은 부분은 경제 전문가의 진단을 무시하고 오너(Owner)의 말이나 정치적 논리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경제문제일 것이다. 전문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신의”를 더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애썼다. 겹의 상처난 치료해 놓고 다 치료한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말이다.

목사님 나 자신도 설교에 있어서 만큼은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사랑감 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위선된 것만 갖게. 습관적 경험적 지혜로 설교를 하려든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까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니면 설교에 대해 목사 앞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려 든다. 설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고서 감히 내뱉는 용감성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나마 전문가인 목사 앞에서 이뤄지지 말았다. 하지만 문제는 용감성이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과 교훈과 처방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리라!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직접 제자들에게 비난을 할 수도 있었으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한 문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본문에 실려있는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천지창조에서 숨겨져 있는 일이다. 생애 조각을 한 옷에 붙이는 일. 마지막으로 새 술을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일은 매우 어려움은 감정을 교훈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되신 예수와 함께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 있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새 술”에 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습관적, 전통적, 종교적 유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축제의 향연

에 꼭 빠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맞는 법칙이 지난 1년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인생은 험하고 험하고 모든 것이 험하다”라는 견도 서 기자의 말들에 동의할 하게 된다. 이 말들은 자신의 이성이나 습관, 전통이나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자기”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도전이자 강력한 회심의 촉구일 수 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할 때 그 의미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혹자는 감히 “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한지 모르겠다. 그렇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고 있을 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할 때 그 의미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혹자는 감히 “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한지 모르겠다. 그렇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고 있을 터이다.

길거리에서 보던 듯이 하늘을 우리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기 보다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 통회하는 심령 즉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심령(새부대)이 됩시다. 새 술(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새부대)만이 즐기며 취할 수 있는 영원한 음료라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변석규목사(춘천시립성교회))

